

교수회 회장 입후보자
이 력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이 영 희
- 생 년 월 일 : 1969. 10. 01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010-6554-7574
(연구실) 031-8005-3823
- 교 내 연구실 : 죽전 캠퍼스 대학원동 224 호



■ 학 력 사 항 (3개 이내)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생물교육) 학사 (1993)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 석사 (2001)
- University of Houston, College of Education, 교육과정&수업, 교육학 박사 (2007)

■ 주 요 경 력 사 항 (3개 이내)

- Texas Southern University 전임교수 (2012-2013)
- 15, 16기 교수협의회 운영위원
- 취창업지원처장 (2021-2023)

■ 주 요 연 구 실 적 (논문 및 저서 5편 이내)

- 논문, 학생 선택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분석 및 현장 인식 조사, 교육문화연구 (2024)
- 논문,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초·중등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사례 분석 및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 논문, 성인지 감수성 개념 영역 제안 및 교사들의 성 인지 감수성 조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23)
- 논문, 공과대학의 이론 및 실험·실습 원격수업 운영현황 조사 및 학생 인식 탐색: COVID-19 대응 운영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023)
- 저서, 『과학의 본성』,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학교자치2』 외

이상과 다름 없음.

2024 년 11 월 19 일

후보자 성명 이 영 희 (인 또는 서명) 이 영 희

교수회 회장 입후보 소견서

입후보자 성명: 이 영 희 소속: (죽전캠퍼스)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존경하는 단국대학교 교수님들께,

저는 교수회의 "섬김, 소통, 참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3대 교수회 회장직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단국대학교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왔으며, 교수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수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부 보직 경험을 통해 학생 지원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의 권익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은 15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묵묵히 고통을 분담해주신 교수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직에 선출된다면, 교수님들의 든든한 동료로서 교수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금 인상 시, 교직원 임금 인상을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등록금과 함께 교직원의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교수님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전체 회원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 교수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교수회의 모든 회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교내 교수님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헬스센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건강 관리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교내 헬스센터를 통해 교수님들이 체력을 관리하고 연구와 교육에 더 힘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회의 회장직에 도전하는 이 자리는 저에게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회장이 된다면 위의 공약을 실천하며, 교수회가 교수님들께 자랑스러운 연합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회의 섬김의 자세로 학교와 교수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교수님들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올림